

서효인의 '소설처럼'



소설의 미래, 현재의 인간

-가즈오 이시구로 '클라라와 태양', 김초엽·김원영 '사이보그가 되다'

수많은 SF 소설이 가까운 미래를 다룬다. 가까운 미래에 인류는 로봇과 감정적 교류는 물론 육체적 관계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설가가 많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30년 뒤일 뿐이지만, 2050년 정도가 되면 인간과 로봇의 결혼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합법적인 일이 될 것이다.

게으른 SF는 미래를 표현하는 클리셰(진부하거나 틀에 박힌 생각 따위)로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성매매를 쓰고는 한다. 누구나 상상하는 미래이기 때문이다. 그 미래는 누군가에게는 디스토피아일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간절하게 기다리는 흥미진진한 내일이다. 동시에 지금을 비추는 오목하고 볼록한 거울이 될 수도 있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의 신작 '클라라와 태양'은 다르다. 이것은 단순한 디스토피아도, 흥미로운 미래도, 일그러진 거울도 아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로봇(AF)은 흔한 동시에 격한 설정이 아닌, 친근하고 심지가 아련하다. 클라라를 포함한 그들은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의 친구가 되며 (당연하게도 현재를 포함하여) 미래에도 바스라지기 쉬운 그들의 정서와 심리의 안정을 돕는다. 그를 위해 로봇도 감정을 배우고 발전시킨다.

AF에게는 태양이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 기술적 이유로 그들은 태양을 필요로 하고 이는 기술적으로 뒤처

진 일이다. 클라라의 새로운 친구 조쉬는 클라라에게 곧 태양과도 같다. 그러한 조쉬에게 절망이 닥쳤을 때, 클라라는 태양을 찾는다. 울분과 좌절에 휩싸인 인간이 신을 찾듯이, 믿음으로 서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듯이.

태양을 절대자로 삼아 인간의 안정을 비는 인공지능 로봇의 모습은 낯설지 않다. 로봇은 질병이나 사고 등의 우연 혹은 운명으로 버려진 인간을 격정한다. 하지만 인간은 격정이 없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로봇이 인간에 의해 처참히 버려진다 하더라도, 인간은 원래 그렇다는 듯이. 그렇다면 우리는 로봇과 인간 중 누구를 더 인간적이라 봐야 하는 걸까?

소설은 아니지만 김초엽·김원영 작가의 '사이보그가 되다'를 함께 소개해도 좋을 듯하다. 책에서의 기술은 미래가 아닌 현실에 충실한 듯 보인다. 기술은 완벽한 여성이나 일회용 친구를 개발하는 데 쓰일 수도 있지만, 휠체어와 의족과 보청기의 사용성이 더 좋아지는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사용성이 좋아진다 함은 그것이 몸의 일부가 된다는 뜻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장애인이라 아니라면, 더 잘 들리게 하는 보청기, 이동을 더 편하게 하는 휠체어 등은 일부의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기술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없다. 우리는 모두 일종의 '포스트 휴먼'이다.

책은 기술과 결합하여 살아가는 장애인들 '장애인 사이보그'라 칭한다. 인간더러 사이보그라니? 하지만 우리는 모두 기술과 이상적인 결합을 꿈꾼다. '노화하고 취약해지고 병들고 의존하게 될' 개인적 미래와 장애인 사이보그가 보여 주는 현재의 기술은 필연적으로 한 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 일부의 변화가 몸 전체의 변화를 이끌 듯이, 기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재의 지향기 미래를 바꿀 것이다.

50년 뒤에 깜짝 놀랄 만한 기술이 탄생하여 장애를 교정하고 치료하는 게 아닌, 현재의 기술이 장애인의 삶에 도움을 주고, 장애의 경험을 확장하고 보편의 기준을 와해시킬 때, 사회는 재설계될 수 있다. 이동권을 주장하는 장애인이 버스터미널에서 시위해야 하는 오늘날의 재설계, 점차 안내 표시 위에 광고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공간의 재설계, 발달장애인과 다운증후군이 거리에 도통 보이지 않는 현실의 재설계가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다.

부지런한 SF에서는 '섹스 인형'을 다루지 않는다. 가즈오 이시구로의 SF는 거기에서 인간의 본질을 찾는다. 그것은 미래를 포함하는, 지금의 현실이다. 누구나 상상하는 미래가 아닌, 누군가의 현실인 지금을 쓰는 게 낫다. '사이보그가 되다'와 '클라라와 태양'은 지금 여기를 말함으로써, 미래의 기술을 상상하는 책이다. 미래의 기술로 지금의 인간을 들여다보는 이야기다. <시인>

의료칼럼

똑똑한 복약



김동규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강진의원 원장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 약을 복용하는 데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약효를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약을 알고, 나를 알면 무병장수'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건강을 지키는 똑똑한 복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알약보다 가루약이 더 약효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약의 형태와 효능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가루약은 캡슐이나 정제와 달리 몸속에서 녹아 약 성분이 용출되는 과정 없이 노출되어 있어 체내 흡수가 빠른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약 효과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효능은 동일하다. 캡슐이나 정제에 들어 있는 부형제나 제조 기법에 따라 위에서 녹지 않고 장까지 가는 것 등 종류가 다양하므로 캡슐을 개봉해서 내용물만 복용하거나 정제를

분쇄하여 가루약으로 만들어 먹으면 위장 장애가 생기거나 부작용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부분 약은 꼭 식후 30분 이내에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약에 따라 식전에 먹거나, 식사와 관계 없이 복용해도 되는 약이 있다. 또는 식사할 때 같이 복용해야 흡수가 더 잘 되는 약도 있다. 일반적으로 진통제 등은 공복에 복용하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식후 30분 이내에 복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반면 약물의 흡수율이 공복 상태일 때 증가하는 제산제나 장용성 등은 식후 2-3시간이 지난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약은 가능한 물과 함께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을 먹을 때 물이 없다는 이유로 음료수, 우유, 커피 등 다른 음료와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음료수 대부분은 약 성분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며, 일부 약과 특정 음료를 함께 섭취할 경우 심장 박동 이상, 근육통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로 감기약에는 카페인 함유되어 있어 카페인이 있는 커피와 함께 복용하면 가슴 두근거림, 현기증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영양제를 먹고 있는 사람이 다른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는 영양제라는 이유로 함께 먹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약은 함께 먹어도 문

제가 없는 반면, 어떤 약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전문의나 약사와의 상담이 필수 조건이다. 예를 들어 유산균과 항생제는 함께 복용하면 체내 유익균인 유산균도 사멸할 수 있어 항생제 복용 후 4-5시간 뒤에 유산균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영양제의 일부 성분은 특정 음식을 함께 먹었을 때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전문의의 조언이 필요하다.

감기나 몸살 같은 경우 다른 사람이 먹다 남긴 약을 먹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삼가야 할 행동이다. 약물 오남용 주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예전에 처방받았던 약을 다시 복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나눠 먹는 것이다. 약은 환자의 증상과 질환의 원인을 보고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조제되는 것이기에 증상이 같다고 해서 타인이 처방받은 약을 나눠 먹으면 절대 안된다. 타인의 약을 임의로 복용할 경우, 부작용의 위험은 물론 유통기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약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약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안전성과 효능을 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개봉 후에는 사용 기간이 달라지므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약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변질될 수 있다. 색깔이 변했거나 녹는 등 형태가 변한 경우, 습기가 너무 많은 곳이나 30도 이상 고온에 방치된 경우 등에는 미련 없이 약을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고

지역 경제의 '청신호'를 기대하며



이호석 호남지방통계청장

5월이 되면 이양하 선생님의 '신록예찬'이라는 수필 한 구절이 생각난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먼 산을 바라보라. 어린애의 웃음같이 깨끗하고 명랑한 5월의 하늘, 나날이 푸르러 가는 이 산 저 산..."

어느덧 나날이 푸르러 가는 5월이 되었지만, 우리의 경제 현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전히 적신호를 보여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다.

이월 때일수록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보다는 최근 우리 지역 경제의 동향을 통계 수치를 통해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올 1분기 광주·전남 지역 경제 동향 중 물가, 고용, 인구 이동, 수출 등 네 개 분야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먼저 물가 부문이다. 올해 1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광주시가 106.4, 전남도는 107.5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각각 1.0%, 1.5% 상승하였다. 보통 매년 1분기 물

가의 상승 폭이 높게 나타나긴 하지만 올해는 특히 농축산물물의 물가가 광주시는 14.9%, 전남도는 11.6%로 올라 그 상승 폭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기상 여건의 악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대파와 달걀 가격 등이 올랐기 때문이다. 물가가 오르면 가구의 소비가 위축되고 그 결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농축산물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고용 부문이다. 경제 흐름의 중심에는 고용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 분야 역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광주시 취업자 수는 73만 6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만 1000명 줄었다. 특히 광제조업 분야의 취업자 수가 7000명 가량 크게 감소하였는데 자동차, 기계장비, 섬유제품 부분의 생산 위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남도 취업자 수도 또한 94만 7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4000명이 줄었는데 이는 관광객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인구 이동 흐름은 광주시와 전남도 모두 전입보다 전출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년 같은 분기에 비하여 각각 3294명, 1028명 순유출을 보이고 있다. 이 중 20대 청년이 각각 1048명, 2731명 순유출 되어 경제활동 대상인 젊은 층의 순유출 현상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유

출은 일자리와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청년층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제공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수출은 다행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 광주 지역의 수출액은 39억 달러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중간재인 프로세스와 컨트롤러도 더불어 수출이 늘었고, 승용차와 냉장고 수출도 늘어 수출액이 3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 수출액도 90억 달러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22.3% 증가하였는데 이는 선박 수출 증가 및 철강재 수출 단가 상승으로 철강재의 수출액이 늘어난 덕분에 분석된다.

요약하면 올 1분기 우리 지역 경제는 물가, 고용, 인구 이동 분야에서는 적신호를 보였으나 수출 분야에서는 조금씩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광주시가 1만 4000명, 전남도는 2만 1000명 증가하여 고용 상황이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기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통계는 무미건조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사회의 모습과 사람들의 생각 등을 읽어내는 '세상을 비추는 눈'이 된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시대이지만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수립으로 2분기, 3분기에는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보다 많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社說

학살 책임자로 전두환을 다시 법정에 세우자

기껏해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90) 전 대통령을 학살 혐의로 법정에 세울 수는 없을 까. 최근 그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저격수로 활동한 계엄군이 시민의 목을 직접 조준해 저격했다는 증언이 처음으로 나온 데 이어 이로 인한 피해자까지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 학살 책임자로 꼽히는 전두환 씨 등을 다시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5·18 당시 11공수여단 저격수로 활동하며 시민을 조준 사격했다는 계엄군의 증언을 확보했다. 해당 계엄군은 "1980년 5월 21일 옛 전남도청 앞 차륜형 장갑차 위에서 운동복을 입고 태극기를 휘두르는 청년의 목을 조준경으로 조준해 직접 쏘다"고 증언했다.

조사위는 이 증언을 토대로 검시 조서 등을 확인해 당시 현장에서 숨진 피해자

여섯 명을 찾아낸 뒤 그 가운데 김용표 씨를 피해자로 특정했다. 이처럼 조준 사격으로 인한 새로운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그것이 군 상부의 지휘로 인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전 씨 등 가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조사위의 입장이다. 전 씨는 지난 1997년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대법원은 80년 5월 27일 옛 전남도청 진압 작전 희생자들에 대한 살상 행위만을 유죄 근거로 판단했다. 이후 전 씨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지만 반성은커녕 회고록 등을 통해 끊임없이 5·18을 뉘우기고 있다.

다행히 5·18특별법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소시효의 문제는 해결된 상태다. 조사위는 조준 사격으로 인한 피해자와 지휘 체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전두환 씨 등을 학살 책임자로 다시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이다.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달빛철도로 이어지길

달구벌 대구와 빛고를 광주가 오는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 나섰다. 광주와 대구 두 광역단체는 최근 공동 개최에 뜻을 모으고 오는 26일 국회에서 구체적인 유치 추진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 유치가 성사되면 1986년 서울, 2002년 부산, 2014년 인천에 이어 국내에서는 네 번째로, 영·호남 상생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는 대구와 광주 모두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대구는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광주는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를 깔끔하게 치른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공동 유치 추진 배경에는 영·호남 속원 사업인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깔려 있다는 점

에서 주목된다. 여수 엑스포와 평창 동계 올림픽 등의 사례에서 보듯 지역에서 대규모 국제 행사가 열리면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광주와 대구를 한 시간대로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최근 공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서 배제돼 지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영·호남은 국토 남부의 양대 축으로 그동안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 왔다. 따라서 달빛내륙철도를 통해 영호남 소통과 협력이 촉진된다면 국가적으로도 하나 된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구와 광주는 속원 사업인 달빛내륙철도가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치밀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 또한 경제성이 아닌 국민 통합 가치 실현 차원에서 내륙철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전환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지난 3월 문을 연 갤러리 포도나무(광주 양림동 백서로 79-1)는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작은 공간이다. 개관 기념전이었던 '새 몸 제비를 부르다-월간 잡초'전은 소박하고 의미 있는 전시로 기억 속에 남아 있다.

지금 갤러리 포도나무에는 전 세계에서 보내온 25여 점의 작품이 프린트 돼 걸려 있다. B5 크기의 아주 작은 그림들이지만, 모두 '하나의 목소리'를 품고 있다. 미안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투쟁을 응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림에는 '똑같은 동작'들이 보인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해맑게 웃고 있는 강아지가, 심지어 무생물인 컵과 텀블러가 취하고 있는 동작도 모두 같다. 검지·중지·약지 세 손가락을 펴서 하늘을 향하는 '세 손가락 경례'(Three-finger salute)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 미안마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된 '세 손가락 경례'는 동명의 공상과학소설을 스크린으로 옮긴 '형거 게임: 판옵의 불꽃'(2012)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영화에서 세 손가락 경례는 독재 정권 '캐피톨 시티'의 지배에 맞서는 혁명

군의 불복종 표현이자 이들에 대한 지지 표명의 상징이었다. 이후 태국의 민주화 시위와 홍콩의 우산혁명에 이어 미안마 시위에 사용되고 있다.

1980년 5월을 겪은 광주 사람들에게 미안마는 '2021년의 광주'로 일컫는다. 광주·전남 작가들은 그 어느 지역 예술가들보다 먼저 연대의 깃발을 들고 미안마 사진전과 미술 전시회 등을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갤러리 포도나무 전시는 미안마 예술가와 창작자들이 설립한 'RTF'(Raise Three Fingers)와 협업해 진행하는 기획이다. 미안마에 웃고 있는 강아지가, 심지어 무생물인 컵과 텀블러가 취하고 있는 동작도 모두 같다. 검지·중지·약지 세 손가락을 펴서 하늘을 향하는 '세 손가락 경례'(Three-finger salute)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 미안마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된 '세 손가락 경례'는 동명의 공상과학소설을 스크린으로 옮긴 '형거 게임: 판옵의 불꽃'(2012)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영화에서 세 손가락 경례는 독재 정권 '캐피톨 시티'의 지배에 맞서는 혁명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